

광주·전남지역 신혼부부 10쌍 중 1쌍 ‘다문화 혼인’

호남통계청, ‘다문화 변화상’

‘다문화 비중’ 전남 12%·광주 9%
진도·곡성·해남·신안 순 비중 높아
다문화 가구 ↑…광주 1%·전남 2%

호남지역의 다문화 혼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다문화 혼인은 광주 475건, 전북 694건, 전남 782건, 제주 362건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광주 33.8%, 전북 22.2%, 전남 19.6%, 제주 21.9%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17.2%)보다 높았다.

시·군·구 중에서는 제주 제주시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광산구 195건, 전북 전주시 186건 등이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도 제주가 1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남 12.5%(3위), 전북 12.4%(4위), 광주 9.1% 순이었다.

특히 전북 진안군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32.6%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 28.9%, 곡성군 25.5%, 해남군 25.4%, 신안군 24.2% 등으로 집계됐다.

혼인 건수 증가로 지역별 다문화 가구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광주 8700가구, 전북 1만 4693가구, 전남 1만 6325가구, 제주 6164가구 등 2019년 대비 각각 18.4%, 전북 17.0%, 전남 16.0%, 제주 21.5% 증가했다.

전체 가구(2272만8163가구) 중 다문화 가구(41만5584가구) 비중은 광주 1.4%, 전북 1.8%, 전남 2.0%, 제주 2.2%로 조사됐다.

출생아 수는 전국 평균보다는 감소 비율이 낮았으나 2019년 이후 5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호남·제주 출생아 수는 1448명으로 전년 대비 1%(15명) 감소했다.

이 기간 전국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2150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전국의 전체 출생아 수는 23만28명으로 7.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36명으로 2022년보다 50명 늘었고 광주도 323명으로 9명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492명으로 46명 감소했고 제주도 197명으로 28명 줄었다.

시·군·구별로는 광주 광산구(142명), 제주 제주시(135명), 전북 전주시(124) 순으로 다문화 출생아 수가 많았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신안군(20.6%), 영암군(18.2%), 전북 장수군(16.9%) 순이었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5.2%)·전북(6.6%)은 각각 1%와 1.1%가 증가했지만 전남(6.3%)·제주(6.1%)는 0.5%와 0.1% 감소했다.

2023년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5.3%로 충남 6.8%로 1위였고 전북·전남·제주가 뒤를 이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삼성스토어 리뉴얼

광주신세계 본관 8층 생활 매장의 ‘삼성스토어’가 리뉴얼을 통해 더 쾌적한 공간에서 고객들을 맞이한다. 삼성스토어는 부분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이 더 편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가전부터 모바일까지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개방감이 돋보이는 오픈형 매장으로 세단장했다. 이번 리뉴얼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스페셜 이벤트로 구매 금액별로 캐쉬백 포인트를 증정하고 입주·혼수·이사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본관 8층 생활 매장의 ‘삼성스토어’가 리뉴얼을 통해 더 쾌적한 공간

현대자동차, 상품성 강화 ‘2026 아반떼’ 출시

원격시동 등 고객 선호 사양 기본화

현대자동차가 중준형 세단 ‘더 뉴 아반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아반떼’ (사진)를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6 아반떼는 고객의 선호를 고려한 편의 사양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본화로 상품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6 아반떼에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시동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도어 포켓 라이팅(앞)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모던’ 트림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을 기본화 함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에는 17인치 알로이 휠&타이어를 기본 적용해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느낌을 더했다.

현대차는 ‘모던 라이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한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판매를 시작했다.

모던 라이트 트림은 스마트 트림을 기



반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가죽 스티어링 휠(열선 포함) △가죽 변속기 노브 △1열 열선 시트를 적용하면서도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N 브랜드 10주년을 기념해 ‘2026 아반떼 N’에 도심과 트랙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N 팬(Nthusiast) 패키지’를 추가했다.

2026 아반떼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 △스마트 2034만원 △모던 2355만원 △인스퍼레이션 2717만 원이며, △N라인 2806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 2523만원 △모던 라이트 2549만원 △모던 2789만원 △인스퍼레이션 3115만원이며, △N라인 3184만원이다. N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3309만원이며 LPi 모델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2172만원 △모던 2492만원 △인스퍼레이션 2842만원이다.

박소영 기자

유탑건설,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설명회

19일 오후 2시 김대중센터서 “지역경제·국가 에너지 전환 기여”

광주·전남지역 건설사 중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유탑건설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탑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시민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계통 연계 확보 상황, 상생 협약, 사업 수익성과 확장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 실질적인 정보가 소개될 예정이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지난 2월 ‘해상

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계획 입지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총 19조원이 투입되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의 평가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2033년까지 신안군 일대에 총 3.2GW 규모의 10개 풍력단지가 차례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유탑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은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인근 해상 61.26㎢ 면적에 설비용량 323MW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2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유탑건설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 2029년 말 착공, 2031년 준공, 2032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약 88만MWh의 전력을 생산해 약 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정병래 유탑그룹 회장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는 유탑의 기술력과 사업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다. 유탑이 직접 시공과 운영까지 참여해 해상풍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며 “광주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3월 광주·전남 수출·수입 감소… 무역수지 흑자

광주본부세관 수출입동향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6% 감소한 45억4700만불, 수입은 21.3% 감소한 31억3900만불, 무역수지는 14억8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3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

출은 17.1% 감소했으나, 수입이 10.2% 줄어 무역수지는 30억6000만불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한 13억3800만불, 수입은 16.0% 증가한 7억1600만불로 무역수지는 6억22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7%)·기계류(32.8%)·타이어(6.1%)가 증가했고, 반도체(25.3%)·가전제품(3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

도체(18.1%)·고무(256.0%)·기계류(68.7%)·가전제품(2.2%)은 증가했고, 화공품(7.5%)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한 32억900만불, 수입은 28.1% 감소한 24억2300만불로 무역수지는 7억86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448.3%)가 증가했고, 화공품(28.0%)·철강제품(13.9%)·석유제품(49.1%)·기계류(8.1%)는 감소했다. 수입은 화공품(0.1%)이 늘었고, 원유(37.6%)·철광(19.0%)·석탄(26.3%)·석유제품(2.5%)은 줄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금융공공기관, 대학생 취업지원 체계 구축

자산관리공사 등 13곳 참여 금융권 취업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가 금융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 금융공공기관들과 ‘지역 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공공기관의 지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경쟁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권 취업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권의 전문성과 광주시의 청년정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5~12월까지 금융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자·점프(G-JUMP, Gwangju-Job ability upgrade University Mentoring Program)를 본격 운영한다. G-JUMP 프로그램은 광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12개 금

융공공기관 지역본부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금융기관과 대학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고, 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자 선별 및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50여 명의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현직자 멘토링, 기관탐방, 금융공공기관 합동 취업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기업 공헌활동(ESG)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각 기관 별 채용조건, 자격요건, 평가 방식, 면접 대비 자료 등 맞춤형 정보 제공 △현직자의 실전 경험에 기반한 멘토링과 합격 노하우 공유 △금융·경제·회계 분야의 실무 역량 기회 등 취업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